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1월에는 3년을 후원한 신학생 세 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그 중 한명은 고등학교부터 후원한 호세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임시 교사를 하면서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여 이번에 졸업을 하였고 두 명은 3년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역시 신학생들을 후원하여 키우는 것도 너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금년 초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세 명의 신학생이 더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회가 철야기도회를 하면서 약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참석하였는데 밤에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낼 곳에 없기에 교회로 와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감사하였습니다.

12월 둘째 주에 있을 청소년 캠프에 많은 유스들이 모여 은혜받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또 한분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어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 하게 됩니다.

2016년 마지막 달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이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금년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게 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기에 금년의 마지막을 맞으며 저희 선교사역의 마지막과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잘 마무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교회와 기도원을 알리는 달력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사역하는 것에 감사가 넘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길 옆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점심급식하는 사역과 학생들의 학비지원 그리고 각 가정에 대한 지원사역은 아무 어려움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사모가 니무루지역의 추운날씨로 인해 거의 한달을 기침을 심하게 하여 걱정하였는데 잠시 몸바사에 다녀오면서 잘 회복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귀한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JSBMF위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1.새로운 선교사가 잘 적응하여 사역할수 있도록
- 2.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 3.교회와 기도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